

느림·힐링...청산도 슬로 걷기축제 인기몰이

슬로시티 어워드·타종·힐링 토크...9000여명 참가 공식행사
30일까지 서편제 한마당·초분 체험·전시·공연 등 프로그램

“느림은 행복입니다.”
‘슬로시티’로 지정된 완도 청산도에서 ‘느림의 미학’을 주제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열려 관광객들의 발길을 이끌고 있다.

완도군은 1일부터 30일까지 청산도 일원에서 ‘청산도 슬로 걷기축제’(Slow Walking Festival)를 개최하고 있다. 특히 지난 11일에는 신우철 군수와 김종식 전 군수, 김동삼 군의회 의장, 유권철 완도 교육장을 비롯해 유관기관·단체장과 관광객 등 9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축제 공식행사가 열렸다.

이날 행사는 슬로시티 가치를 실현하고 기여한 인물에게 수여하는 ‘제2회 청산도 슬로시티 어워드’를 비롯해 ‘느림 메시지 전달 및 느림의 종 타종식’, ‘명사와 함께 슬로길 걷기’, ‘힐링 토크’ 등 다채롭게 진행됐다.

제2회 청산도 어워드는 수상자는 베에르 조르지오 올리베티 국제 슬로시티 사무총장이 선정됐다.

공식행사의 백미인 ‘힐링토크 시즌 2’에서는 벨런트 손현주씨와 개그맨 고명환씨가 ‘느림’과 ‘힐링’을 소재로 방문객들과 호흡을 나누었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청산도 슬로 걷기 축제는 걷기를 소재로 한 최초의 축제이자 최장기간 개최되는 저비용 고부가가치의 경제축제로 평가받고 있다. 축제의 대표 프로그램인 ‘정·산·완·보’는 슬로길 11개 코스(42.195km)를 느리게 걷고(緩步), 웃으며 걷다 보면(笑步), 어스레 완보(完步)하게 된다는 의미의 걷기 프로그램이다.

또한 예년에 비해 ‘서편제 어울림 한마당’과 ‘청산도를 이야기하다’, ‘초분 체험 프로그램’, ‘전통이 흐르는 거리’, ‘청산진성 탐방 프로그램’ 등 주민참여 행사와 다양한 공연·전시프로그램이 마련됐다. 문의(061-550-5152)

한편 완도항에서 남쪽으로 1시간 거리(19.2km)에 위치한 청산도는 한국영화 최초 100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 ‘서편제’와 드라마 ‘봄의 왈츠’ 등을 통해 널리 알려졌다. 구들장 논과 돌담장, 해녀 등 느림의 풍경과 섬 고유의 전통문화를 잘 간직한 청산도는 1981년 12월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된데 이어 2007년 12월 아시아 최초 ‘슬로 시티’로 선정되는 등 고유의 가치를 인정받았다.

／완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지난 11일 완도 청산도를 찾은 탐방객들이 영화 ‘서편제’속 돌담길 장면을 재연하고 있다. 청산도는 지난 1993년 4월 개봉한 영화 ‘서편제’(감독 임권택)와 드라마 ‘봄의 왈츠’ 등을 통해 널리 알려졌다. <완도군 제공>

진도읍 2층 규모 노인복지회관 문 열어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진도지역 노인들의 권익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한 점병역할을 수행할 진도읍 복지회관이 문을 열었다.

진도군은 지난 8일 이동진 군수를 비롯한 기관·단체장과 지역 노인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도읍 노인복지회관 준공 및 개관식을 가졌다.

군은 총사업비 3억5000여만원을 투입해 지상 2층 규모의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했다. 1층은 사무실과 다용도실, 2

층은 회의실 등으로 사용된다. 진도군 관계자는 “진도읍 노인복지회관 개관에 따라 노인 일자리사업 등 어르신들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맞춰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진도=박현영기자 hyupark@



진도 서거처항 ‘어촌 마리나역’에 선정

해수부 20억원 투입 개발

진도군 조도면 서거처항이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어촌 마리나 역(驛)’(해상 간이역)에 선정됐다.

해양수산부는 국가여행 109곳 가운데 이용실태 등을 고려하고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진도 서거처항을 ‘어촌 마리나 역’에 최종 선정하고 올해부터 연차별로 20여억원을 투입해 개발할 예정이다.

어촌 마리나 역 개발 대상항은 거점 마리나와의 거리 등 입지 적합성과 항내 여유수역 및 정온수역 보유, 어업인 등

의 등 개발 적합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진도군 관계자는 “해양레저 활동의 안전성 제고와 활성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어항기능의 다각화·고도화를 통한 어업 외 새로운 소득 창출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어촌 마리나 역’은 어업과 해양레저 활동이 공존하는 어업 겸용 소규모 마리나 시설이다. 거점 마리나 시설들과 연계·지원하는 해양레저 서비스 공간이자 비상시 피항과 휴식을 비롯해 지역의 소규모 레저형 선박을 안전하게 수용할 수 있는 곳이다. /진도=박현영기자 hyupark@



해남군 서울서 농수특산물 직거래 장터

해남군(군수 박철환)은 지난 10~12일 서울에서 서초구 농협 양재하나로클럽 야외 매장에서 농·수·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개최했다.

이번 특판행사장에서는 겨울배추와 절임배추, 마늘, 건고추 등 김장재료를 비롯해 쌀, 고구마, 세발나물, 녹차류, 장류 등 다양한 해남산 농·수·특산물을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했다. 이와 함께 김장담그기 체험(사진)과 김치 시식회, 가족과 함께하는 떡메치기 행사 등 체험거리도 풍성하게 마련됐다. 군은 매년 수도권 지역의 소비자 공략을 위해 대형 유통센터와 연계한 직판행사를 운영, 연간 10억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수산물 축제 경연 나갈 해조류 음식 공모

완도군 20일까지 접수...대상 200만원 등 상금

완도군은 ‘2015 장보고 수산물 축제’를 앞두고 오는 20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조류 개발음식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완도에서 생산되는 해조류와 자연 그대로 농·수·축산물을 이용해 다양한 음식을 개발하고 상품화함으로써 해조류의 우수성 홍보와 지역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의의가 있다.

접수는 완도군 홈페이지(www.wando.go.kr)를 통해 가능하다. 접수된 개발요리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 20팀을 선정 후 24일 군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전국 해조류 음식개발 경연대회 총 시상금은 1000만원이다. 대상 200만원에서부터 장려상 30만원까지 순위

에 따라 차등 지급 계획이다. 선정된 20팀은 오는 5월 5일 장보고 수산물 축제 주무대에서 열리는 ‘전국 해조류 음식개발 경연대회’에서 실력을 겨룬다.

이 밖에도 완도군은 13~19일 롯데백화점 서울 영등포점과 부산본점, 광주점에서 ‘미리 만나보는 완도 장보고 수산물대전’을 열고 ‘청정 완도’의 신선한 수산물을 선보인다. 완도지역에서 생산되는 활전복, 김, 미역, 다시마를 비롯한 다양한 해조류와 수산물 가공식품 등 120여종의 농·수·특산물을 판매한다.

한편 완도군은 5월 1일부터 9일까지 해변공원 일원에서 ‘2015 장보고 수산물 축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완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해남군 고천암호 둔치에 토종작물 체험장

3km 구간 5만5000㎡ 조성...참여 단체·학교 모집

해남군이 고천암호 둔치에 토종작물 체험장을 운영한다.

해남군은 삼산천 하류인 삼산면 웅암에서 화산면 금풍교간 3km에 이르는 고천암호 둔치 5만5000㎡에 토종작물 체험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체험장은 크게 3개 구간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구간(웅암 입구에서 해창교 방향 300m)에는 색동호박과 조롱박, 여주, 수세미 등 박과 작물 4종을 심어 덩굴터널을 조성한다.

두 번째 구간(해창교까지 1.5km)에는 국화와 침을 비롯해 조·수·수·공 등 토종작물 전시포와 보리·고구마·메밀 등 일반작물 전시포를 조성한다.

세 번째 구간(해창교~금풍교 1.2km)에는 목화과 금계국을 파종해 연중 꽃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체험장 곳곳에 간이 원두막을 조성해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

록 한다. 군은 현재 체험장 중 1.3km 구간에 보리를 파종했으며, 5월 중순부터는 토종작물 체험장을 본격 조성할 예정이다. 군은 군민이 참여하는 체험장으로 조성하기 위해 일부 구간을 관내 사회단체와 학교, 자원봉사센터 등에 배분해 관리 위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군은 토종작물 체험장 운영에 함께 참여할 사회단체와 학교를 모집하고 있다. 참여단체는 오는 5월과 10월에 고구마와 메밀 등 토종작물을 직접 심고 수확할 수 있다.

해남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토종작물을 직접 보고 수확할 수 있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과 함께 경관작물로 길러 연중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어린이들에게 농심을 심어주는 동시에 지역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상무 Biz Tower

즉시입주가 가능 임대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지원합니다.
쾌적한 업무환경과 여유로운 주차,
상무지구에서 가장 저렴한 임대, 관리비,
정직한 공용면적 적용으로
입주업체와 함께 동반성장 하겠습니다.

건물구분	권장업종	면적
1층	제과점 계약완료 편의점, 보세외류 임차예정	잔여 231㎡
2층	사무실	잔여 1201㎡
3층	사무실	1629㎡
4층	사무실	1267㎡
5층	사무실	1400㎡
6층	사무실	임대완료
7층	사무실	1400㎡
8층	사무실	1383㎡
9층	사무실	1367㎡
10층	사무실	1342㎡
11층	사무실	1307㎡
12층	사무실	임대완료
13층	사무실	임대완료
14층	사무실	잔여 111㎡

* 임대료 3.3㎡당 25,000원(4층 27,000원) 관리비 3.3㎡당 9,000원

상무비즈타워 (구.남영비즈타워)

광주광역시 서구 시민로 103 (차평동 1210-4)

임대관리 010-7570-7525
관리실 : 062)381-5551 FAX : 062)384-5551

해숫음 부동산

수완지구 현진에버빌 아파트 임대

▶ 광산구 수완동 933 해솔 현진에버빌
1단지 1층 / 53평
정남향 / 초중고 인접 / 로얄동 / 즉시입주가

◆ 전세 4억
(월세 보2억/월100만원)

공인중개사무소 674 - 2006